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FOCUS

메드테크 산업,
디지털헬스에서 가치를
포착하는 방법



CONTENTS

01

포커스

- 메드테크 산업, 디지털헬스에서 가치를 포착하는 방법 1
-

02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Anthem 등 3사, AI 기반 조인트벤처 설립 4
 - 미국 FDA, Koios Medical 등을 혁신적인 의료기기로 지정 4
 - 독일, 보건·간호의 디지털현대화법(DVPMG) 시행 예정 5
 - 일본, 성장잠재력이 높은 온라인진료 시장 5
 - 순회진료센터, EHR의 채택이 중요한 이유 6
 - 첨단 기술, 간호사들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 6
-

03

4대 보건산업

- 미국 생명과학산업, 향후 연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7
 - 독일 BioNTech, 중국 푸싱社와 COVID-19 백신 생산 계약 체결 7
 - EU집행위원회, NGTs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8
 - 유럽, 지속가능한 발전과 순환형 바이오경제 모델링 추진 8
 - 일본, 의약품의 우선심사 지정제도 법제화 9
 -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근 화장품 시장과 소비자 구매패턴 동향 9
 - COVID-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최소화를 위한 조치 필요 10
 - IMF, COVID-19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결정요인 조사 10
-



메드테크 산업, 디지털헬스에서 가치를 포착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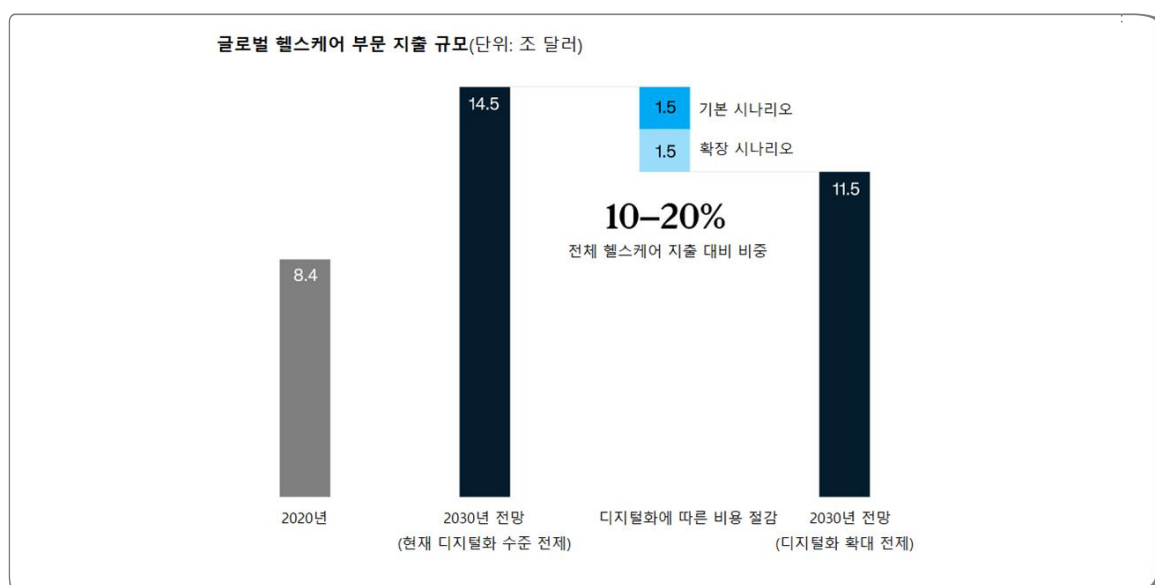
글로벌 컨설턴트 업체인 맥킨지(McKinsey)社は 최근 보고서를 통해 헬스케어 분야에서 첨단 IT 기술과 의학을 결합시키고 디지털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메드테크 기업들이 향후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커다란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 운영방식의 신속한 디지털 변경과 적절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1] 디지털화 수준에 따른 헬스케어 분야의 비용 절감 규모

■ 디지털 기술은 헬스케어 시스템의 작동을 효율화할 뿐 아니라 비용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30년에는 원격 모니터링과 인공지능, 자동화 등에 의한 비용 절감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1.5~3조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

- COVID-19 팬데믹 상황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IT 기술의 개입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20년 2~6월 기간 동안 원격 1차 진료 건수가 3배나 증가
- 미국의 경우 직접 병원을 방문하는 것보다 원격 진료가 더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20년 9월 조사에서는 65%, '21년 1월 조사에서는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화 수준에 따른 헬스케어 분야의 비용 절감 규모 전망 □



- 팬데믹의 영향으로 헬스케어 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확산될 여지가 커지고 있지만 메드테크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에 대응하는 속도는 여전히 느린 것으로 평가

* Mckinsey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점 만점으로 산업별 디지털 역량을 측정한 결과, 전산업 평균 34점,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소매업의 경우 40점으로 나타났으나, 제약 및 메드테크 분야는 28점에 불과

[2] 메드테크 기업들의 취해야 할 4가지 전략

■ 글로벌 주요 메드테크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McKinsey 조사 결과, 이들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매출의 10%가 디지털헬스 솔루션에서 발생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이러한 목표가 실제로는 향후 5년 이내에 목표치 대비 50% 정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대치를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전략의 실행이 필요

■ 첫째, 메드테크 기업들은 어떤 디지털 기술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디지털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과감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핵심 지표(KPI)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고, 어떻게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 필요

- 메드테크 기업들이 시각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기업의 정보 책임자나 기술 책임자, R&D 책임자들의 역할로 축소되지 말아야 하며, 자신들의 목표가 성취 가능하도록 모든 임원진들이 지원

■ 둘째, 디지털헬스 분야가 메드테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환자의 겪어야 하는 모든 치료 경로를 뒷받침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

- 환자가 겪어야 하는 치료 경로는 △1단계: 1차 예방 및 스크리닝 △2단계: 진단 및 대기 △3단계: 치료 △4단계: 치료 후 예후 관찰 및 재택 자기 관리 등 4개의 단계로 구분되며, 메드테크는 모든 치료경로에 따라 상이한 제품과 도구, 데이터,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
- (제품과 도구에 대한 기회) 진료지원 디지털 도구는 1~2단계에서 제공되며, 커넥티드/통합치료 도구와 환자 행동지원 접근 도구는 1~4단계 전체에 제공되며, 진료 의사결정지원 도구는 1~3단계에서 제공되며, 신규요법은 3단계에서 제공
- (데이터에 대한 기회) 실제 데이터 기반의 첨단 분석 기법은 3~4단계에서 제공되며, 비즈니스로서의 첨단분석은 전체 치료경로 단계에서 필요하며, 질병예측은 1~3단계에 제공
- (서비스에 대한 기회) 질병예측 공중보건 서비스는 1단계에서, 광범위한 헬스케어 공급 서비스는 3~4단계에서 필요

■ 셋째,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메드테크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과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경영 모델의 채택을 모색

- 메드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발전을 이루고,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데이터 통합이나 분석과 같은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

* 메드테크 기업들에게 필요한 역량으로는 디지털 마케팅 능력, 고객 경험 기반의 사용자 디자인 역량, 데이터 생태계의 구축, 데이터 기반 모델링과 분석 도구의 사용 능력 등

- 새로운 경영 모델은 최종 제품의 출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개발 주기를 조정하는 것이며, 조기 제품 출시를 통해 우선적으로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최소한의 생존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

■ 넷째, 메드테크 기업들 역시 생태계 내의 다른 기업들과 시스템을 통합하고,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보호 역시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생태계의 확대가 필요

- 이러한 생태계 구축과정에서 메드테크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자에게 주는 영향, 의료비 환급,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취급에 대한 환자의 동의 관리 등 메드테크와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도 존재

[3] 메드테크 기업들의 신속한 디지털 전환이 요구

■ 메드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얼마나 헬스케어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는지를 인식하고,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의료비 환급이나 지급 모델에 대한 디지털 솔루션 도입이 시급해지는 등의 금융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현재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은 디지털 솔루션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변경하고 있는 추세
- 미국이나 주요 EU 국가에서 의사들이 매월 원격진료에 수여하는 시간이 팬데믹 이전의 3%에서 현재 20% 이상으로 증가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의사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도 선결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

■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솔루션과 결합되기 시작

- 따라서 메드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헬스케어에 의한 전환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하며, 보다 나은 환자의 치료와 지속가능한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

[McKinsey & Company, 2021.05.07.; PR Newswire, 2021.05.13.]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Anthem 등 3사, AI 기반 조인트벤처 설립

■ 미국 보험회사 앤섬(Anthem), 자산운용사 블랙스톤(Blackstone),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헬스 스타트업 케이헬스(K Health) 3사는 환자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류를 통해 의료비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춘 조인트벤처를 설립

- 신설 조인트벤처의 이름은 하이드로젠헬스(Hydrogen Health)이며, 향후 수년에 걸쳐 1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K Health가 개발한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할 예정
- Hydrogen Health가 사용하는 K Health의 애플리케이션은 의료 서비스 소비자의 과거 이력, 나이, 성 등의 정보에 기초하여 소비자가 필요한 건강 관련 우려에 대해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의료 니즈를 선별해주는 기능을 보유
- 의사들에 의해 구축된 알고리즘은 수백만건의 의료기록에 기초하여 학습한 AI에 의해 보다 정교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환자들에게 의사의 진찰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

* '16년에 설립한 K Health는 현재까지 2.7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4백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있으며, 특히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전년 대비 1,000%의 성장세를 기록

[Healthcare Dive, 2021.04.14.; Business Wire, 2021.04.14.]

미국 FDA, Koios Medical 등을 혁신적인 의료기기로 지정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혁신적인 의료기기(breakthrough device)'를 지정한 업체 중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인 코이오스메디컬(Koios Medical)사와 디지털 치료기기를 판매하는 네소스(Nēsos) 등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

- Koios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유방 및 갑상선 암을 조기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로, 초음파 영상을 분석하여 방사선과 의사가 조직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능을 보유
- Nēsos가 개발한 류머티스 관절염을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는 이어폰을 통해 중추신경계를 조절하는 전기적 신호를 보냄으로써 면역 시스템에 의한 류머티스 관절염의 고통을 완화하는 작용을 담당
- 이외에도 인공지능이 지원하는 인체 미세조직 단층촬영 시스템, 녹내장 환자의 지속적인 안압 관리를 위해 이식 가능한 마이크로 센서, 최소 절개술을 통한 절제 카테터 삽입을 위한 극초단파 발생기, 특정 형태의 유방암 환자를 위한 동결 절제 시스템 등이 FDA의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Meditech Dive, 2021.05.05.; EIN Presswire, 2021.04.11.]

독일, 보건·간호의 디지털현대화법(DVPMG) 시행 예정

■ 독일 연방보건부(BMG)는 간호, 원격 의료, 공중보건시설의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디지털 조력을 목표로 하는 ‘보건·간호의 디지털현대화법(DVPMG)’의 ’21년 중반 시행을 예고하고 주요 규정을 소개

- DVPMG가 시행되면, 간호가 필요한 사람은 새로운 디지털간호애플리케이션(DiPAs)을 사용하여 운동을 통해 건강상태를 안정시키거나 개선하고, 가족과 간호 인력의 소통도 개선
- 또한 디지털 건강 앱(DiGA)에 의한 의료의 발전으로 보험 가입자는 앱을 통해 전자 환자기록부에 데이터 입력이 가능해지고, 의사 및 심리 치료사는 DiGA를 통해 처방이 가능
- 미래의 연결수단 또는 연결 서비스로서의 텔레매틱스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보험 가입자, 서비스 제공자, 비용 부담자 사이의 안전한 전송 처리가 확대되고, ’23년부터 보험 가입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디오 상담이나 DiGA 사용 시 본인 인증을 위한 디지털 ID를 발급

[BMG, 2021.05.06.; kma Online, 2021.05.07.]

일본, 성장잠재력이 높은 온라인진료 시장

■ 글로벌 컨설팅업체 딜로이트(Deloitte)社は 일본의 온라인진료 인지율은 40%를 넘지만 실제 이용률은 1.9%에 그쳐 향후 큰 성장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온라인진료를 위한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

- 온라인진료의 구조는 가치사슬의 수직통합, 특히 온라인진료와 이후 공정의 통합 및 연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 온라인진료는 후속 서비스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수직통합으로 일관된 유저체험이 가능하다면 사업자는 새로운 수익원 개발이 가능
- 온라인진료 데이터는 후공정인 약이나 헬스케어 데이터와 결합하면 질병과 복약, 질병과 환자건강기록(PHR)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매우 가치가 높은 정보로 변모
- 제도·규제 측면에서 일본은 공적보험제도가 온라인진료 활용의 인센티브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폭넓은 질환에 온라인진료가 가능하려면 프로그램 의료기기 등의 전개가 필수지만 인증에 관한 정부 동향이 온라인진료 보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일본정부는 ’40년 고령자 비율이 36%에 이르면서 의료비, 간병비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급부 비용이 약 190조 엔에 이를 전망으로 온라인진료를 기점으로 의료기관, 간병시설이 연동하는 예방 중심의 지역포괄케어를 실현해 의료비를 삭감한다는 계획을 추진

[デロイト ト マツ, 2021.05.14.; 日本經濟新聞, 2021.05.09.]

순회진료센터, EHR의 채택이 중요한 이유

■ 순회진료센터(Ambulatory surgery centers, ASCs)가 전자건강기록(EHR)을 채택할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시기적절하게 관리하며 환자건강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기에 관리헬스케어(Managed Health Care) 측면에서 중요

- '09년 미국은 '경제와 보건의료를 위한 건강정보기술법(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HITECH) Act)'이 통과됨에 따라 병원과 의사들은 전자의료기록(EHR) 채택에 따른 인센티브가 발생
- 그러나 ASCs의 경우 EHR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ASCs는 여전히 종이에 작성된 진료기록을 사용하는 실정
- ASCs는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환자 수용 능력이나 외래 환자의 접근성 때문에 많은 병원과 보건 의료 체계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료정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EHR의 도입이 매우 중요
- 현재 ASCs의 진료 범위와 건수가 확대되고, 의료정보 취급에 대한 규제의 준수, 의료정보에 대한 상호운용성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ASCs의 EHR 도입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

[HIT Consultant, 2021.05.12.; Managed Healthcare Executive, 2021.04.13.]

첨단 기술, 간호사들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

■ 로봇 공학이나 데이터 분석과 같은 솔루션들은 간호사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뿐 아니라, 일상업무에 부담을 완화시켜 환자의 간호에 보다 많은 시간의 배정이 가능

- 의료기록 작성, 의사 및 보건의료인력과의 협력, 의약품 제고 파악 및 보급, 의료용 장비의 작동, 진료 결과의 분석 등의 간호사들의 업무에 로봇공학, 데이터분석, 모바일 디바이스와 진단기기들을 활용할 경우 간호사가 직면한 업무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혁신이 가능
- 실제로 간호 정보과학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예측 분석,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제공, 특정질환 환자들의 자살충동 발생예측,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인 분석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추세
- 전자기록장치와 연결된 바이탈사인 모니터, 음성인식 기술이 적용된 의료서식작성기, 환자이송 로봇, 팬데믹 상황에서 고안된 환자분류용 의료서비스 응대로봇, 노인요양병원 등에서 쓰이는 반러로봇 등은 간호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담당

[Health Tech, 2021.05.12.; Health Tech Zone, 2021.04.29.]



4대 보건산업

미국 생명과학산업, 향후 연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COVID-19의 팬데믹 상황은 미국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바이오테크 부문의 일자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향후 관련 일자리는 크게 늘어날 전망

- 미국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생명 과학 분야 일자리는 '20년 6월 기준으로 18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년 3월의 최대치에 비해 1.3%밖에 줄지 않았으며, 전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분석
- 미국 노동통계국은 '직업 전망 핸드북(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에서 '19~'29년 기간 동안 진단시험기술자, 생물학 관련 기술자, 의과학자, 화학기술자 등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신용평가회사 무디스(Moody's)는 향후 5년간 과학 R&D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증가세는 전체 일자리 증가세 0.3%에 비해 3배나 높은 0.9%에 달할 것으로 전망

[GEN, 2021.4.20.; CBRE, 2020.10.]

독일 BioNTech, 중국 푸싱社와 COVID-19 백신 생산 계약 체결

■ 미국 화이자(Pfizer)社와 COVID-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테크 기업 바이오엔테크(BioNTech)社는 중국의 제약회사 푸싱(復星)과 5:5 지분 비율의 바이오벤처를 설립하고, 연간 10억회분의 메신저RNA(mRNA) 백신 제조 및 판매를 추진할 예정

- 개발당시 백신의 정식 명칭인 BNT162b2 혹은 상용화 이후 제품명 코미나티주(Comirnaty Inj)로 불리고 있는 BioNTech와 復星의 공동 생산 백신은 중국 시장을 위한 독점 계약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중국 국내의 임상시험과 함께 홍콩과 마카오 지역에도 출시할 계획
- 이번 계약에서 復星은 1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현금과 생산 설비의 형태로 제공하고, BioNTech는 1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생산 기술과 백신 생산 관련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
- BioNTech와 復星 양사는 올해 중국 본토에 1억회분의 백신을 공급하고, 조인트벤처에 의한 COVID-19 백신의 중국 내 생산에도 상호 합의 도출

[Fierce Pharma, 2021.05.10.; Fortune, 2021.05.10.]

EU집행위원회, NGTs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 EU집행위원회(EC)는 EU 이사회(Council)의 요청으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유전공학 기술을 검토한 ‘유전체신기술연구(study on New Genomic Techniques, NGTs) 보고서’를 발표

- '01년에 채택한 현행 ‘유전자변형유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관련 법규가 혁신적인 기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EC는 새로운 바이오기술을 위한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의 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광범하고 공개된 협의를 시작할 예정
- '01년 EU의 GMO 관련 규정이 발효된 이후에 개발된 GMO와 관련된 모든 기술을 의미하는 NGTs는 지난 20년간 빠르게 발전해오고 있으며, 이미 EU의 일부 무역 파트너 국가의 시장에는 이러한 기술을 응용한 작물이나 제품이 출시
- '21년 5월 중 개최될 예정인 농업및어업위원회에서 EC는 이번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EU의회 및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NGTs에 의해 개발된 작물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정책적 선택사항에 대한 공개된 협의와 영향평가도 실시할 예정

[European Commission, 2021.04.29.]

유럽, 지속가능한 발전과 순환형 바이오경제 모델링 추진

■ 지속가능한 발전과 순환형 바이오경제를 목표로 하는 EU 바이오경제 전략은 경제-사회-환경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파리협약에 따른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

-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는 정책 전환을 위해, 관련 지식과 미래 지향적인 역량을 투입해야 하며, 특히 복잡계와 상충 관계, 전환을 위한 잠재적 이동 경로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계량적 차원의 모델링이 필요
- EU 바이오경제전략 보고서는 △지속가능성을 이루는 세 가지 차원인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바이오경제의 계량 모델링을 위해 필요한 현재의 역량을 분석하고 △정책 형성을 지원하는 새롭고 개선된 모델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
- 바이오경제 모델링을 통해 △학문 분야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며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에 존재하는 장벽을 제거하고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고려한 복잡한 시스템 모델의 발전을 강화하고 △미래의 모델 발전을 위해 기술발전과 혁신을 제고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2021.04.30.]

일본, 의약품의 우선심사 지정제도 법제화

■ 일본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혁신 의약품을 우선 심사, 조기 승인하는 ‘우선심사 지정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용해 왔으나 COVID-19 확산을 계기로 관련법을 개정해 동 제도를 ‘21년부터 ‘선구적(先驅的)의약품 지정제도’로 새롭게 법제화

- 일본은 의약품의 품질, 유효성, 안전성 확보 및 필요성 높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약기법)을 정비
- 약기법은 '20년 개정 후 3단계로 시행되며 1단계로 우선심사지정제도를 법제화했으며 2단계는 '21년 8월 첨부분서(전자) 제공 원칙화, 지역연계 약국 도입,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의약품 판매 시 과징금 제도 창설, 3단계는 '22년 12월 의약품 등의 포장에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
-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선구적 의약품 지정제도’의 대상이 되면 우선심사 등 심사에서 우대를 받고 승인 후에는 약가개정에서 가산점을 받아 약값이 상승하는 효과 발생
- 기존의 우선심사지정제도를 미국이나 유럽의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 보면 지정된 후 승인에 이르는 비율은 40~50%로 큰 차이가 없지만 기업 등이 신청한 의약품이 지정되는 비율은 일본이 11%인 반면 미국은 42%, 유럽은 56%로 큰 차이가 존재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21.05.14.; 厚生労働省, 2021.05.14.]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근 화장품 시장과 소비자 구매패턴 동향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시장의 최근 발전 상황을 조망한 결과,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에서 페이스 마스크팩 매출이 급신장하는 등 COVID-19의 영향으로 프리미엄 제품과 의학적 효능을 가진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가속화

- 동남아시아와 대만지역의 Shopee에서 기획한 4월 4일 메가 쇼핑데이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페이스 마스크팩의 매출액이 급증하는 등 프리미엄 브랜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
- 일본의 전문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인 MT Metatron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의학적 효능을 보유한 포스트 에스테틱 스킨케어 제품이 급신장하고 있다고 전망
- 싱가포르의 뷰티 브랜드 IDS Skincare는 의사가 추천하는 높은 품질과 효능을 가진 스킨케어 브랜드가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 COVID-19 상황에서 싱가포르의 아나카(Anake)사는 소비자들이 DNA 기반의 스킨케어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세안 전문 브랜드 로터스허벌(Lotus Herbal)사는 식물유래 성분의 세안제품이 미용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Cosmetics design- asia, 2021.05.04.; Prestige Online, 2021.05.14.]

COVID-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최소화를 위한 조치 필요

■ 영국(B.1.1.7)과 브라질(P1) 등에서 전파된 COVID-19 바이러스 변종의 확산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의 효과가 무위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종의 발현 속도를 낮추고 △조기에 변종을 발견하고 △바이러스 이동경로의 최소화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

- 변종의 발현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숫자와 비례하기 때문에 감염자의 숫자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 감염자의 숫자를 줄이는 것과 아울러 감염 재생산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공중위생을 제고할 뿐 아니라 변이에 강한 새로운 백신 개발이 시급

- 바이러스 변이의 글로벌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에 발생 지역에서 변이를 검출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영국의 사례처럼 대표 샘플군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

* 특히 COVID-19의 경우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재감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면역이 형성된 사람이나 백신 접종자들도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 대상에 포함

- 바이러스의 이동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역과 격리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여행자의 입국 위치에서 99%의 확률로 바이러스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검사 및 격리 전략의 수립이 중요

[Bruegel, 2021.05.04.; WHO, 2021.05.20.]

IMF, COVID-19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결정요인 조사

■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국에서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자 영국 온라인 시장조사기관 YouGov와 임페리얼칼리지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이 개발한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여 17개국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주저하는 결정요인을 조사 분석

- 백신 수요는 연령과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특징, COVID-19 심각성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백신 접근의 용이성, 개인의 안전 및 위생에 대한 태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 COVID-19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 및 공개 정도 등의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
- 전염병 역학의 기본 모델인 비감염자-감염자-회복자(Susceptible-Infectious-Recovered, SIR) 모델에 백신접종 기피 결정요인을 추가한 팬데믹 다이내믹스 모델을 구축하여 분석
- 백신기피로 인해 백신접종을 늦출 경우 COVID-19의 감염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백신 접종을 원하는 성인들을 빠르게 접종할 경우 기피로 인한 영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IMF, 2021.05.07.]